

“더욱 진화하고 발전된, ‘뜨거워진 광주’ 보여드리겠습니다”



24일 뮤지컬 '광주'의 고선웅 연출가를 비롯한 제작진과 배우들이 라마다 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했다.

광주

광주문화재단, 뮤지컬 '광주' 기자간담회
연출가·음악감독·예술감독·배우 등 참여
“배우들 참나적 예술, 색다른 모습으로 표현”
5월16~2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9차례 공연

도 자리를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는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5·18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한 창작 뮤지컬로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뜨거웠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세 번의 시즌 만에 104회 공연을 펼쳤다. 시즌마다 진전된 서사와 음악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고선웅 연출가는 매 시즌 비슷한 유형의 서사라는 지적에 대해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 열린 답변을 내놨다. 그는 “네 번째 시즌을 준비하며 매 순간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며 “공연의 특성상 천변만화하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무대에 펼쳐지는 순간 배우들의 참나적인 예술을 통해 색다른 모습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성준 음악감독은 관객들과 무대의 배우들이 하나로 호흡할 수 있는 음악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이 감독은 “막 후반부 ‘홀라홀라’ 음악은 다시 사용했던 곡을 재해석했다. 투쟁과 관련한 넘버 등은 지금의 어법과 당시 코드와 혼합해 세련미를 가미했다”며 “‘광주’가 K 뮤지컬을 지향하는 만큼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작품은 민주화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산화했던 무명인 이들의 의로운 투쟁과 죽음에 초점을 맞췄다. ‘진실을 진실로 알고 진실되게 행하는 자, 진실 속에 영원히 머문다’는 문구가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야학교사 윤이건 역을 맡은 김찬호는 배우로서 뜻있는 작품에 출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시즌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이더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광주의 희생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번 공연에는 언급한 대로 광주 출신 배우들도

캐스팅돼 관심을 모았다. 조배근 배우는 “무대에 함께하게 돼 굉장히 기쁘고, 연습을 하는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답했고, 구자연 배우는 “광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광주’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황수빈 배우는 “좋은 제작진과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으며, 무엇보다 ‘광주’가 담고 있는 내용이 위로와 따스함을 준다”고 언급했다.

‘광주’는 독재자의 죽음을 기화로 봄을 기대하는 광주시민들의 열망을 조형화하며 전개된다. 들불야학의 윤이건과 황사 음악사의 정하인 등은 봄의 노래를 의식치 않으며 미래를 낙관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깨진다. 쿠데타를 일으킨 JT가 또 다른 독재를 꿈꾸며 모종의 시나리오를 짜면서 시민들의 ‘봄’은 아득히 멀어져 버린다.

광주의 희생과 민주화 투쟁은 이후 우리나라와 제3세계 민주화의 불씨를 지피고 확장하는 견인차로 작용한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뮤지컬 본고장 브로드웨이 ‘787 seventh’에서 진행된 쇼케이스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와 연계한 세계화·대중화를 위한 방향성 논의도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유희성 예술감독은 “‘광주’에 대해 ‘한국의 레미제라블’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만큼 광주를 넘어 서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했음을 보여준다”며 “세계적인 콘텐츠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비롯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풍년 문화재단 대표는 “뮤지컬 ‘광주’는 광주 5월을 울리게 만들고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대표 콘텐츠”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5월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가 계속 생산되고 공유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 오는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9차례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강진아트홀 ‘수묵회’ 초대전 ‘찬란한 모란의 봄’

25일~5월9일...50여점 전시

고(故) 희재 문장호(1938~2014) 화백은 목재 허행면에게 사군자와 산수의 기초를 배운 후 의재 허백련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지난 1967년 창립된 ‘수묵회’(楸墨會·회장 최현철)는 문장호 화백에게 가르침을 받은 한국화 작가들의 모임으로 매년 회원전을 열어 작품을 선보여왔다.

지금까지 서울과 광주에서 전시를 열었던 회원들은 지난해 처음으로 스승의 고향인 나주 한국전원염색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지역민들과 그림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회원들의 고향을 순회하며 전시를 여는 것도 의미있겠다 생각한 이들은 첫 행사로 최현철 회장과 김영순 회원의 고향인 강진을 선택, 전시를 추진했다. 정양용, 김영랑, 김현구의 흔적과 고려정자, 시문학파기념관, 백련사 등을 품은 ‘문화 답사 1번지’ 강진은 흔쾌히 회원들에 화답, 강진아트홀 초대전을 준비했다.

‘찬란한 모란의 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5일부터 5월9일까지 강진아트홀 전시실(강진읍 영랑로 1길 9)에서 열린다. 초대 일시 25



문장호 작 ‘초여름 강 풍경’

일 오후 5시.

44번째 회원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산수를 주제로 한 실경 작품과 한국화의 기운생동한 정신 세계를 현대적 추상기법으로 담아낸 다채로운 작품 5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에는김대원·고화석·곽마리아·김영순·김인선·나지숙·박문수·박희석·이동영·이안자·장복수·최현철·허영리·홍성국 등 회원21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홍도, 아미산, 영월 계곡산, 제주, 월

출산 등 한국의 아름다운 산하와 단풍과 은행이 어우러진 초가를 풍경, 설경 등 한국의 사계를 다양한 기법으로 풀어냈다.

농약, 인물 작품도 눈길을 끌며 다양한 기법과 화사한 색감, 추상적인 화면으로 한국화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90년대 초의 작품인 문장호 선생의 실경산수 ‘초여름 강 풍경’도 만날 수 있다. 전시장 개관 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경 단시
김용택

은즉사 마보남은 봄산
들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동정들 듣고 목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동정 소리 들리면
봄의 살을 내 마음
꽃아간 즉 알아라.

2023. 3. 21

수묵화와 시인의 육필원고가 만나다

수묵화 이태호, 시 한승원·김용택·정호승·곽재구
5월31일까지 순천 은하수갤러리...28일 이태호 교수 만남의 시간

순천 은하수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전은 수묵화와 시인들의 육필원고가 어우러진 전시다. 전시 제목은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섬진강 불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든”고 노래한 김용택 시인의 시 ‘봄날’에서 따왔다.

미술사학자이자, 최근에는 수묵화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태호 명지대 명예교수는 봄을 알리는 수묵화를 선보이고 한승원, 김용택, 정호승, 곽재구 시인은 직접 육필로 자신의 시 작품을 써내려갔다.

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규근)이 운영하는 은하수 갤러리는 곽재구 시인이 머물고 있는 창작예술촌 1호(순천시 육전길 19) 1층에 위치한 ‘시(Poem) 갤러리’다. 기획초대전인 이번 전시는 ‘순천의 봄’이 주제로 오는 5월31일까지 계속되며 28일 오후 4시에는 이태호 교수와의 만남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

전시에서 만나는 수묵화는 이 교수가 순천 곳곳을 찾아 직접 그린 작품들이다. 지난 2021년 곽 시인이 순천에서 보낸 흥매 사진을 보고 그린 작품 ‘흥매꽃 봄별 즐기고’를 시작으로 올 봄소식을 알릴 전혜준 순천 금전산 금둔사 흥매, 봄기운이 가득한 순천 동천가 고매, 육천서원 왕느티나무, 육천변 마른 갈대 등을 화폭에 담았다.

그의 붓은 순천 동천 언덕에서 남산으로 넘는 하천담을 포착하기도 하고, 순천 대대포 갈대밭

이른 새벽 노란 달을 표현하기도 한다. ‘봄먹거리 나오고 누렇게 겨울나고 순천 늪은 호박 당차고’라는 글귀와 어우러진 ‘순천 아랫장 늪은 호박’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시인들의 육필 원고를 감상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네 명의 시인은 각자의 개성 있는 필체로 시를 적어내렸다.

정호승 시인은 “산산조각이 나면/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라 노래하는 ‘산산조각’,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야’라고 위로하는 ‘수선화에’, ‘풍경달다’ 등을 전시한다.

김용택 시인은 ‘그러면’, ‘우화등산’ 등을, 곽재구 시인은 “언덕에 핀 꽃들과 바람이 만나기를” 기원하는 ‘나의 행복’,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등을 선보인다. 한승원 작가는 ‘바람’ 등 짧은 시편을 써내려갔다.

전시를 기획한 곽 시인은 이태호 교수에 대해 “오늘날 우리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의 답사기와 명강의에서 비롯됐다”며 “그의 그림은 우리 옛 선비들이 꿈꾼 삶의 결을 진솔하게 느끼게 해준다”고 말한다. 또 “우리 문단의 어른인 한승원, 김용택, 정호승의 시편은 우리네 삶과 자연, 종교의 꿈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몸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일요일 운영. 전시정보는 순천문화재단 누리집, 인스타그램(@gallery_eunhaso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명작 ‘자전거 도둑’ 75년만에 정식 개봉

26일부터 광주극장

전 세계 영화팬들을 사로잡았던 명작 ‘자전거 도둑’ (1948)이 드디어 국내 정식 개봉된다.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은 ‘지 금까지 찍은 영화 중에 가장 인간적인 영화’라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찬사를 비롯해 우디 앨런, 알파스 키아로스타미, 움베르토 에코, 봉준호 감독 등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작품이다.

1950년 미국 아카데미영화 시상식과 골든글로브에서 동시에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영화협회에서 발간하는 영화 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선정하는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The Greatest Films of All Times)’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디지털 리마스터링 과정을 거친 ‘자전거 도둑’

이 26일 영화팬들을 만난다. 광주극장에서 상영하는 ‘자전거 도둑’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한 남자가 자전거를 도둑맞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담은 감동적인 작품이다.

주인공과 아들 역의 배우가 모두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차 대전 직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의 거리.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던 안토니오는 거리에서 벽보를 붙이는 일을 맡는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필요하다. 다는 사실을 안 아내 마리아는 남편의 직업을 위해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집대 시트를 전당포에 맡기고 자전거를 구입한다.

한편 직업을 갖게 된 안토니오와 그의 아들 브르노는 기쁨을 참지 못하지만 이튿날 안토니오가 출근해 벽보를 붙이는 사이 한 사내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는 것을 발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